

# '쇼!오디오자키', '뉴트로' 열풍 업고 색다른 재미 즐까



'빅뱅'도 ASMR이 유행인 시대. 비디오보다는 오디오에 차별화를 둔 콘텐츠에 젊은층은 열광하고 있다. tvN 새 예능프로그램 '쇼! 오디오자키'의 출연진들

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tvN 새 예능프로그램 '쇼! 오디오'의 메인 연출을 맡은 이영준 PD는 13일 서울 마포구 삼삼동 스

텐포드호텔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뉴트로'를 언급. 빠른 시대에 '오디오자키'를 들고 나왔다"고 프로그램

## '마리텔'과 달라...듣고 나서 보는 예능

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요즘 오히려 영상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역으로 오디오, 듣는 것에 집중하는 유행이 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뉴트로'라는 말이 있듯이 밤늦게 감성에 빠져 듣던 오디오를 젊은이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디오를 하면 어떻게 싶었죠." (이영준 PD) 이 프로그램은 오디오 자키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담아낸 예능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특식 오픈 스튜디오에서 공개 라이브 오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오디오 자키들이 자신만의 매력 드러내는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디오 방송은 각종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으며 TV를 통해 첫 이야기를 포함한 준비과정과 진행상황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봄의 라디오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 PD는 "봄 씨가 하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재밌게 하고 있더라. 음악을 틀거나 시그널이 나오거나 광고가 나올 때 디제이들이 뭘 하는지 과정들이 모두 방송용으로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상도 하고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했다"고 말했다.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점 때문에 MBC '마리텔'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영준 PD는 "완전히 다르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마리텔'은 먼저 다 보고 방송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는 먼저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부분이 많다. 여러 일을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본방이 나가는데도 오디오로만 들어도 살아있다. 저희는 틀어두고 다른 일을 하셔도 오디오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디오가 가진 장점이 아닐까 싶다. 말은 자신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도전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듣고 눈으로 본다는 가치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출연진은 다양한 매력으로 라디오를 끌고간다. 성시경은 라디오의 매력을 제대로 살린 '그대 곁에 성시경입니다'를 선보이고 박영수는 FM보다는 AM라디오 같은 직연령층을 겨냥한 '박영수의 호락호락쇼'를 선보이며 트로트계의 셋빛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또 소유진은 육아 경력을 심분 살리며 '소유진의 스위트룸'을 만들어 냈다. 봄은 현재 진행 중인 SBS 라디오 '봄봄파워'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봄 박스'를 보여준 예정이다.

## '해치' 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조선의 치열한 '수사권 다툼'



들어온 의금부는 "수사는 의금부에서 맡을 거다. 사건이 이관됐다. 진하의 어명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호통쳤고 사헌부는 "갑시 헌부 마당에서 칼을 뽑다니. 이 사건은 사헌부의 것이다. 의금부에 밀릴 수 없다"고 맞섰다.

'해치'에서 사헌부와 의금부의 수사권 다툼이 치열하게 그려져 흥미를 유발했다.

12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해치' (극본 김이영/연출 이용석) 19, 20회에서는 살인 누명을 쓴 연잉군(정일우 분)과 사건 수사를 둔 사헌부와 의금부의 대립이 그려졌다.

왕세제가 된 연잉군은 노론도 소론도 인정하지 않는 왕세제로 입지가 약한 상황. 설상가상 살인 누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남장을 한 어린 소녀가 양반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연잉군은 자신이 살인죄를 뒤집어 씌움에도 진범을 밝히지 못했다. 결국 연잉군은 위병주(한상진 분)에 의해 사헌부에 체포됐다.

위병주를 비롯한 사헌부는 연잉군을 향한 압박수사를 다짐했다. 사헌부 소속 박문수(권율 분)와 여지(고아라 분)가 연잉군의 누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헌부와 의금부의 대립이 시작됐다. 국왕 직속 사법 정보 기관인 의금부는 왕실의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다. 사헌부 역시 왕족의 비밀을 고발할 권한이 있다. 양측은 서로 연잉군 사건의 수사를 맡겠다며 수사권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연잉군이 잡혀있는 사헌부로부터

사건이 의금부로 이관됐지만 사헌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은 사자를 결의하고 경종(한승현 분) 앞에 나섰다. 연잉군 사건 수사를 왕의 직속기관인 의금부가 아니라 사헌부에게 넘겨달라는 것. 이들은 "왕실을 위하는 의금부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공정한 보장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전원 헌부를 사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을 뺏기 위한 의금부와 사헌부의 대립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을 연상시켰다. 수사권을 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그려지며 흥미를 더하고 있다. 사극은 종종 현대를 풍자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생각할거리를 던져주곤 한다. '해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치'의 도화서, '동이의 장악원, '마의'의 해민서 등 조선시대 전문직을 소재로 드라마를 집필해 온 김이영 작가는 '해치'를 통해 사헌부를 조명 중이다. 김이영 작가는 방송 전 "조선시대 사헌부가 오늘날의 검찰청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는 부분에 매료됐고 조선사의 한 장면을 통해 현재를 되짚어볼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 관심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악질경찰·우상·돈...명품 배우들이 몰려온다



명품 배우들이 동시에 몰려온다. 오는 20일 3편의 한국영화가 동시에 개봉한다. 영화 '악질경찰' (감독 이정범), '우상' (감독 이수진), '돈' (감독 박누리)이 같은 날 공개되는 것. 3편의 기대작 영화가 동시에 개봉하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의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들이 다 모였다.

먼저 '악질경찰'은 뒷돈을 챙기고 비리는 눈감고 범죄는 사주 하는 쓰레기같은 악질경찰이 폭발사건 용의자로 몰리고 거대 기업의 음모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범죄 드라마다. '아저씨' 이정범 감독의 신작으

로 이선균이 온갖 범죄를 일삼는 악질경찰 조필호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 보왔던 경찰 캐릭터들과는 급이 다른 악질 경찰의 모습을 선보인다. 박해준은 악질경찰보다 더 나쁜놈을 연기하며 악역 캐릭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우상'은 아들의 뺑소니 사고로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남자와 똑같은 아들이 죽고 진실을 쫓는 아버지, 그리고 사건 당일 비밀을 간직한 채 사라진 여자까지, 그들이 맹목적으로 지키고 싶어 했던 참혹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한공주' 이수진 감독의 차기작으로 명품배우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가 호흡을 맞췄다. 제 69회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해외에서 먼

저 주목 받은 작품이다. 144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돈'은 열일하는 배우 류준열과 유지태, 조우진 등이 호흡을 맞췄다. '돈'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신입 주식 브로커 일현(류준열 분)이 베일에 싸인 작전 설계자 변호사(유지태 분)를 만나게 된 후 엄청난 거액을 건 작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류준열은 신입 주식 브로커 역할을 맡아 다시 한번 청춘의 얼굴을 연기하게 됐다. 유지태와 조우진은 류준열과 함께 어우러져 관객에 긴장감을 전할 예정이다.

각각 다른 재미를 가진 영화들이 동시에 개봉하며 관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원하는 작품은 골라 보는 것도, 세 편의 작품을 다 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하다.

## 공원소녀(GWSN), 미니앨범 '밤의 공원 part two' 발매



걸그룹 공원소녀(GWSN)가 더욱 새롭고 신비로워진 두 번째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공원소녀(서령, 서경, 미야, 레나, 앤, 민주, 소소)는 13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박스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밤의 공원 part two(THE PARK

IN THE NIGHT part two)'를 발매한다.

'밤의 공원 part two'는 공원소녀의 세계관이 담긴 '밤의 공원' 3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 앨범의 연장선상임과 동시에 세 번째 이야기 대한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는 소포모어 앨범이다.

오프라인 음반에는 92P에 달하는 포토북과 소원나무, 7개의 픽업점으로 이뤄진 별 핑키스타(Pinky Star) 등 공원소녀의 세계관이 담

긴 스토리텔링과 오브제들이 곳곳에 기이해 특별함을 더한다.

타이틀곡 'Pinky Star(RUN)'는 데뷔 앨범 타이틀곡 '퍼즐몬(Puzzle Moon)'에 이어 프로듀싱팀 '스튜디오 피드스워드'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완성한 곡이다. 새끼순가락을 뜻하는 'Pinky'와 꿈을 뜻하는 'Star'를 합친 'Pinky Star'는 언제 어디서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공원소녀의 꿈과 약속이 담겼으며, 부제 'RUN'은 'Renew Universal Network'의 약자로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전곡 음원과 함께 'Pinky Star(RUN)' 뮤직비디오 풀버전도 공개, 공원소녀의 세계관을 그려낸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 뮤비 속 멤버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Pinky Star(RUN)' 외에도 '별처럼 밤새 빛나는 꿈을 노래하겠다'는 시적인 내용을 담은 곡인 'TOKTOK(수천 개의 별, 수천 개의 꿈)과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찬 주제의 'BLOOM(True Light)', 언제 어디서나 거짓 없는 '나'이고 싶음을 노래한 'Miss Ping Pong', 단 하나뿐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One & Only', 공원소녀의 팬들 그루(GROO)들에게 바치는 팬송 'Growing ~ for Groo', CD 한정 스페셜 트랙 'TOKTOK ~ the park night version'까지 더욱 깊어진 음악 세계와 메시지가 모인 총 일곱 개의 트랙이 이번 앨범에 수록됐다.

###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음력 2월 8일)



▶**서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 사는 것은 힘든 인연이다.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살 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지금은 힘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 나, 다, 자 성씨 힘을 내라. 합심한다면 좋을 듯.



▶**시작** 시작은 좋으나 부진하다고 자신감을 잃기에는 시기상조다. 오해를 받고 운명을 탓하지 마라. 노력으로 성격을 바꾸어라. 생각하는 일 있는 나, 5, 7월생은 과감하게 도전하라. 추진한다면 대성할 수 있다.



▶**포부** 포부를 너무 크게 갖지 마라. 원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에 끌려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결단 못 내리면 더 큰 손실이 있겠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나, 4, 6월생 미혼자는 먼 길 외출은 삼가라.



▶**나이** 나이가 많아 내 사업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한다고 한탄 말라. 때가 되면 성취할 수 있다. 자영업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나, 5, 7, 9월생은 가정의 내조가 강해야 사업도 번창해 나간다는 이치를 알라. 사업도 좋지만 가족 건강을 체크해 봄이 좋을 듯.



▶**직장** 직장의 상하 관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없는데도 친격으로 부부관계도 불화가 있겠다. 나, 9, 11월생은 침착하게 처신하고 인내심이 요구된다. 나, 바, 자 성씨 동, 북쪽에 서 금전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순간**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후회하는 격이다. 나, 1, 3, 7월생은 한번 떠난 사람은 아무리 반성해도 다시 올 수 없다. 확고한 자신감으로 인내하며 전진할 때 부진한 사업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려올 듯. 기회를 잡을 것.



▶**호화**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따뜻한 정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부부의 정이 두터워지면 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 나, 3, 5월생은 금전이 융통되어 추진하는 일 길하겠다. 나, 7, 9월생 노란색을 피하라. 약해 보인다.



▶**남의 것** 남의 것 챙겨 주다가 자기 것 잃는 줄 모른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봉사 정신도 좋지만 자신의 것부터 정리함이 좋을 듯. 오늘은 새로운 터전에서 도전하는 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성실하게 뜻을 지켜 가면 저절로 운이 열리겠다.



▶**경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절소하게 여자의 금전을 이용하면 구설이 따르며 가정에 불화가 일겠다. 그 돈을 갖지 못하면 더 큰 것 잃고 후회가 뒤따르게 된다. 나, 2, 4, 6, 12월생 실속을 차리며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부부 화합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라.



▶**사랑**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 걸 사랑 속마음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질 우려 있으니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나, 3, 5, 6월생 욕심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으니 조심.



▶**예기** 예기치 않은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나, 2, 8, 11월생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어느 한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정은 멀어지는 법. 나, 자, 차, 표 성씨 자기 수양에 힘써라.



▶**좋은 일** 좋은 일을 하고서도 험담을 들으니 덕이 없다. 친구 간에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책임져야 할 우려 있다. 애정 문제로 사적인 일에 끼어들면 관계가 열려되니 연행 조심하라. 나, 사, 오 성씨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힘이 되겠다.